



아이날 · 홀벨



세계 최초의 썰

# 「크리스마스썰」 이라는 이름의 십자군

## 미국폐협회 (ALA)자료

이 글은 "크리스마스 썰이라는 이름의 십자군"의 제목으로 미국결핵협회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현 American Lung Association의 전신임)가 Crusade of the Christmas Seal이란 책자를 발간. 크리스마스 썰의 유래와 썰에 관련된 숨은 뒷이야기를 소개한 것으로 2회에 걸쳐 번역 소개합니다. (역자 주)

## 조근수 역/결핵협회 홍보부장

건강을 지키는 결핵협회 운동의 상징인 크리스마스 썰과 복십자에 숨은 뒷 이야기를 돌이켜 봅시다. 오랜 세월이 흐른 것과 같이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편의 드라마로 엮어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 꺼리가 그렇듯이 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85년이란 지난 세월의 시간을 돌려서 크리스마스 썰의 뒤에 숨은 이야기의 시초를 찾아보아야 하겠습니까. 당신 주위에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수세기동안 결핵이란 질병은 다른 질병보다도 더많은 죽음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때에는 폐병으로만 알려진 병으

로 사회에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에서 그병에 대처하려는 많은 위대한 십자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십자군을 돕기 시작한 사람들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리빙스턴 트루도우」 박사였습니다.

트루도우 박사는 결핵과 싸워야 할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1871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바로 뒤 그 자신이 결핵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 죽음의 선고로 믿게 되었습니다.

수년후에 그가 결핵에 걸렸음을 알았을 때의 느꼈던 감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태양은 빛나고 있지만 나에게만은 세상이 그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가장 치명적인 못된 병에 걸렸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나의 아내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나? 하고 걱정도 되었으며, 나의 앞날의 꿈이 산산히 부수어 지는구나 하고 느껴졌었습니다.”

트루도우 박사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좀 있다면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내거나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 주위환경이 좋다고 느꼈던 애디론닥 산에 들어가 죽는 날을 기다리겠다고 그곳으로 가게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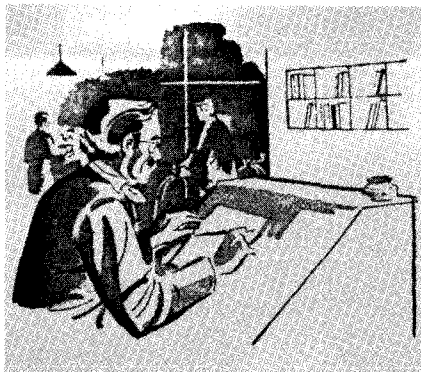
그곳에서의 즐거운 마음과 조용한 생활에서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는데 결핵의 증상도 조금씩 그에게서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휴식하는 동안 그전보다 건강이 훨씬 좋아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휴식과 안정이 결핵을 치유하는가? 라고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그동안 결핵의 원인과 치료에 관

하여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의사들의 결핵에 관한 지식이 그 자신이 찾아낸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하여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트루도우 박사는 자신이 체험하였듯이 완전한 휴식과 안정으로 신체 자신이 병을 아물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 북부 수풀속의 별장

결핵에 걸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자 트루도우 박사는 미국내에서 최초로 결핵병원을 설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첫 건물이 가까운 철도에서 4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사라낙 레이크에 방 하나짜리 외딴주택이었습니다. 이 외딴주택의 크기는 14×18피트였으며 단지 2명의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전부였습니다.

초창기에는 모든것이 어려웠습니다. 트루도우는 그의 친구들과 환자 그리고 그를 믿는 의사들의 도움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도움을 주는 기구나 단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결핵을 치유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루도우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비웃었습니다만 그의 보호로 환자들은 좋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트루도우와 병원의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몸이 되어 사라낙 레이크에 들어와서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 세상에 다시 나아가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동의 건물이 더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공간을 늘리거나 같이 일할 의사와 간호사를 모셔올 충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세계각처에서 결핵치료방법을 알고자 하는 많은 의사들과 저명인사들이 트루도우의 아이디어를 연구하고자 작은 병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자신들이 결핵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의사들과 대중들은 결핵은 치유될 수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결핵과의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미치는 결핵과 싸움을 어떻게 소수의 인원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근대의 십자군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이와같이 십자군은 국가결핵 및 호흡기질환협회란 기구를 미국에서는 1904년에 설립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상징마크는 바로 십자군인 복십자(卐)였습니다. 물론 초대 회장은 사라낙 레이크의 에드워드 리빙스턴 트로도우 박사였습니다.

### 덴마크의 한 우체국직원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결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 건너 덴마크에서는 친절한 「아이날 홀벨」이란 사람이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성이 착한 사람으로써 어린이를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결핵으로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는 그의 마음은 아팠고 이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해 겨울 연말에 크리스마스로 많 아진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번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연말과 연시를 맞이 하면서 선물과 우편이 오가는 마음이 풍만하게 되는 때 특별히 고안된 크리스마스 썰을 그 많은 사람들이 사준다면 해결이 되겠구나! 이맘때가 되면 많은 소포와 편지가 오가는대 거기에 한 낱짜리 썰을 붙이게 한다면 앓고 있는 불우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기금이 모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니다.

홀벨이 일하고 있는 우체국의 우체국장은 그의 착상을 기특하게 여겨 동의를 하게 되었으며 덴마크의 국왕도 그의 착상을 가늠하게 여겨 온 국민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세계최초로 크리스마스 썰 운동이 덴마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1904년 12월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덴마크 결핵 및 호흡기질환협회가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해 아이날 홀벨의 크리스마스 썰 운동으로 어린이를 위한 결핵병원 설립에 필요한 충분한 기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와같이 발행된 세계최초의 크리스마스 썰의 일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지는 우편과 소포에 붙여져서 대서양을 건너 오게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중의 하나가 덴마크계 미국 작가인 「자콥 리이스」에게 그의 고향집에서 보내어진 편지에 붙여져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작가 리이스도 비극적인 결핵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섯명의 형제가 모두 결핵으로 세상을 달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덴마크에서의 결핵과 싸우려는 성공적인 크리스마스 썰 운동에 관해서 잡지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미국에서도 결핵과 싸우는데 있어 덴마크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썰에 관한 착상을 누군가가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델라웨어」의 마음씨고운 여성

세계최초의 크리스마스 썰 운동이 덴

마크에서 지지를 받게 되는 그때 크리스마스 썰에 관한 이야기의 다른 한 장이 「델라웨어」의 「브랜디와인」강가에서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몇명의 의사들이 모여 결핵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통나무집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곳의 의사들도 트루도우 박사가 하였던 것과 같이 충분한 휴식과 좋은 식사로 결핵이 치유될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통나무집 병원에 들어온 환자들은 잘 치유되었지만 병원 개원이라 유지를 위한 자금이 딸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기금을 모으려고 하였지만 많은 노력이 무산되곤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핵에 걸리면 가망이 없으며 치유도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할 방법이 없었으며 이들을 깨우치게 할 길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1907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브랜디와인 통나무집병원의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같이 유지할 기금이 없어서 중단하게 될 처지에 이르게되자 모든 희망이 사라져간다고 생각할때 이들 의사들중 한사람인 「조셉 웨일즈」는 그의 사촌인 「에밀리 비셀」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셀양은 마음씨가 고우며 매력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적십자사에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브랜디와인 통나무집병원에서의 치료에도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금을 모금하는데에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